



서울지역 조직 일제점검 실시



지난 4월11일 협회임원 및 중앙집행위원 연석회의에서 구성한 서울지역조직발전위원회(위원장 김수환 협회 부회장)가 6월19일부터 23일 까지 송파지회를 시작으로 서울지역 전 조직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는 7월4일부터 실시하는 전국대표자수련회에서 보고 될 예정인데 대표자가 유고상태에 있거나 의병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지역이 세 곳이었고 조직이 독선적으로 운영되거나 회원들의 신뢰를 상실하여 대표자 선임이 요구되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또한 아파트밀집지역이나 특히 뉴타운 건설계획이 발표된 지역 등은 보일러시공건수가 현저히 감소하여 조직참여율이 떨어지고 회원 확보가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대체적으로 양호한 지역이 많은것으로 파악되었다.

협회는 발전위원회의 보고사항을 토대로 조직운영, 회원 확보 등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조직을 재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